

buddhanews.com

모든 것을 함이 없이 하고 무심으로 살라

25면에서 계속

무심으로 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자기는 더불어 같이 사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뛰어라 이겁니다. 뛰어라. 생각이 났으면 뛰어라. 뛰는데 뛰는 사이 없이 뛰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발자취 얘기를 잘하는데 뛰 뒤, 뒤의 발자취를 생각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뛰는 사람이 발자취 생각합니까? 걸레를 빨아서 세숫대야에다 탁 핑개칩니다. 만약에 그게 금덩어리 같으면은 착이 붙어서 세숫대야에 탁 핑개치지 않을 겁니다. 금덩어리도 현 걸레 빨아서 내던지듯 그렇게 던져 놓으세요. 그렇게 아무 데나 핑개쳐 놓는 것이 오히려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지, 어디다 공공 물체서 감춰놓는 거는 더 잘 찾아가죠. 도둑이 생각할 때도 아무 데나 금을 핑개쳐 놓지 않으니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생각으로써 살게 되면, 여유가 있고 참다운 삶이 있고 생사를 초월하는 삶이 있고 너그럽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삶이 있다 이겁니다. 머리 깎은 사람만 불교를 믿고 사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반복하는데 그 '반복한다' 이런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운도에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에 따라서 모습도 달라지고 소인도 달라진다는 거죠. 텔런트가 자기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어떠한 역할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받아가지고 나오듯이, 이렇게 자기가 한 대로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오니 정말이지 얼마나 묘한 도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좋은 마음으로써 입력을 해라. 주인공에게 모든 것을 입력을 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통(五神通)이라고 한다. 그 오신통은 바로 입력이 되는 컴퓨터와 같다. 인간은 자동적으로 컴퓨터처럼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니까.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어떤 것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 입력을 해라 이 소립니다.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이 천차만별의 마음을 쓸 수 있습니까? 마음은 그냥 풀 사이 없이 잘나잘나 나뭇잎에서 돌아갑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그런 것을 어떻게 마음이 이걸 했는지 저걸 했는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써, 마음이 아닌 한마음으로써 그냥 여여하게 초월해서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오며, 함이 없이 한다 이 런다면 그것은 아주 최상의 평등공법(平等空法)이죠. 마음이라는 게 참 괴상하기도 하면서 아주 영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얘깁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어려운 살림에 자식을 잘가들이고 시집 보낸다고 글을 사다 놓은 걸 물어보러던 말

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랬는데 고양이를 갖다가 시루에다 찌면 그게 비를 어지는 대로 도둑이 비를어진다든 소릴 들고 고양이를 시루에다 찌답니다. 산 거를. 그러니까 비를리면서 눈을 뜨고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을 쳐다봤는데 그달부터 그 머느리가 어린애를 가졌는데 고양이를 낳았거든요. 마음이 고개인의 마음도 있는 거지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L.A.에서 또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었죠. 차를 타고 가다가 고양이를 그냥 치었다던 말입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고통을 견디질 못해서 비를고선 쳐다보면서 죽더라. 그런데 그달부터 어린애가 있어 낳았는데 고양이를 낳았다고 해서 전화가 오고 아담법석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는 다 늙었으니깐 괜찮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다음에 또 젊어서 나올 때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가 정자와 난자, 그리고 영혼이 들어가야만이 삼합이 합쳐집니다. 공자님 어머니는 공자님을 낳을 때 6년을 기도해서 좋은 영을 달라고 그래서 어린애를

를 낳았는데 한쪽은 병신이고 한쪽은 성하다. 세 쌍둥이를 낳았는데 배가 붙었다. 뭐 이런 문제 등등이 벌어지는 게 전부 그런 연관성 때문입니다. 본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수습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자식들을 귀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지도를 해주시오 이 뜻을, 항상 관(觀)하는 뜻을 '네 나무는 네 뿌리를 믿어야 하느니라. 네 뿌리를 의지하고 살아야 모든 그 유전성이니 인과성이니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니라.' 하는 걸 가르치세요.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앞서의 인과성이라든가 유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무너지니깐요. 무너지는 반면에 새로이 입력한 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팔자 운명이 붙을 데가 없다 이런 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과거는 지나갔으니깐 없다.' 이러는데, 그럼 왜 없다고 하느냐. 우리가 발자취를 볼 때에 벌써 아까 여기서 걸어올 때의 뒷발자취는 없어졌습니까. 가벼웠어요. 가벼웠으니깐 없고, 미래로 걸어갈 거는 아직 걸어갈 게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 현재에는 그것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이 잘나잘나

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 마음이 탁 떠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얼마나 너그럽게 매사에 대해 다 써놓으시고 다 말해놓으시고 나중에 "그냥 여여하라. 그냥 공(空)했으니, 그대로 자유스럽게 살라." 이랬는데, 왜 자유스럽게 살라고 했는데도 자유스럽게 못 살고 그렇게 '아, 이게 옳지. 이게 옳으냐? 이것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되고.' 이렇게 걸리고 매여서 삼니까?

요즘 보면 집을 판다, 땅을 판다, 또 병이 낫다 뭐 또 산소를 쓰고선 사람들이 그냥 재차 죽는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죠. 반드시 믿고 입력을 했으면 어떠한 문제라도, 산소가 잘못 써졌어도 영혼만 딱 건져내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못 써서 자꾸 아무렇게 망하게 되고 죽게 되니까 이 착을 때칠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탄 데다 써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 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대충대충 얘기했지만 그것은

말입니다. 아가 고양이 얘기 했지만 고양이뿐이 아닙니다. 어느 집엘 들어가니까 사람인데 의식은 개예요. 그렇지만 말은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모두가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한 번 더 사람을 거쳐서 사람의 행과 도리를 배우고 그 순서가 완벽해야 세 번째 가서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습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될 합니까? 고양이로 살고, 개로 살고, 구렁이로 살면 습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는 만날 그렇게 개나 고양이처럼 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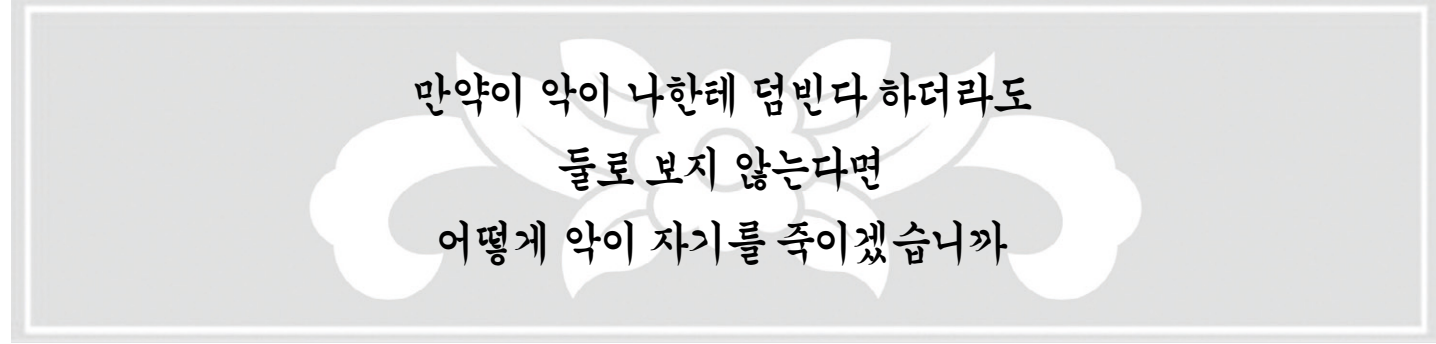
그러니까 그 습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 남이 하는 걸 가만히 살펴서 자기가 사람 노릇을 한다면 다시 요다음에 한 번 더 중간 사람으로서 또 태어나서 자비를 베풀게 되고 선의를 베풀게 되고 이렇게 한 번 더 살아야 완벽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로써 자식이 그렇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못해도. 그러나 부모의 은혜는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그러다가 그냥 낙화처럼 떨어지죠. 떨어지게 되면 거는 뭐 지속거리죠. 하하하.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행되는 문제들을 잘 보세요. 지금 애플랜드인가 거기서 울림픽인가요, 뭐 운동하는 것도요, 눈을 노리고 말입니다. 그거를 이기라고 그냥 힘을 쓰고 이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일어나죠. 한번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서 천덕꾸러기로 살면 이 사람네들이 꼭 그거만은 이겨야지.' 이라고는 그냥 내버려두는데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질게 마음을 쓰고 이러니, 사람이 가슴이 그냥 탁 터지는 것 같고 온통 불안하고 야단이 나죠.

그런 문제도 문제거니와 생활하는 속에서 그런 거예요. 자식이 어떠한 문제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속 웃고 '허, 주인공,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믿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럼, 오히려 가다가도 돌아서게 되죠. 이게 이렇게, 이렇게 묘한 구석이 있는 도리입니다. 이게. 가라 그러면 돌아서고, 오라 그러면 가고 이러는 도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자체가 너그럽고 지혜롭고 둥글고, 돌 아니게 볼 수 있다면 모두 너그럽게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 갖은 노력을 다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전력을 다해서 이기는 걸 보면 뭐 하나 소홀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6년 7월 21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됐든 어찌해서 인연이 됐든 악해도 인연이 되고 선이라도 인연이 되고 그러거든요. 선의 인연으로써 내 자식이 됐다면 아주 평화스럽고 좋지만 악의 인연으로써 자식을 낳았다면 그것은 아주 평화롭지가 못하고 가정의 분란이 끊임 없이 일어나죠.

그리고 애라는 마음에서 인연이 되고 약연으로써 아주 뼈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게 인연이 된 사람은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깃털이나 거미 얘기처럼 그 자식이 태어나고서 중간 중간 가서 그냥 딱 없어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까지 아주 잘합니다. 잘하다가 그냥 탁 죽어버려요. 탁 죽으면 가슴에 물어버리죠. 그 자식이 가슴에 물어진단 말입니다. 약연의 그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니까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약연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젊으나 늙으나 남녀를 막론해놓고 어떤 사람도 소홀히 볼 게 아니죠. 예전에는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좋지 않고 병으로 자주 연관되고 있죠. 자식을 쌍둥이

돌아가니까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이것 한생각으로써 입력하는 데 문제가 달려 있다 이겁니다. 한생각 입력하는 데서 업보가 오고, 착을 두는 데서 인과가 오고 그러는 거죠. 유전성이 오고. 영계성도 착에서 오는 겁니다. 타의에서 영계성이 오든 자의에서 영계성이 일어나든 모든 것이 착, 욕심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애정도 그래요. 누가 애정을 갖지 말라나 사랑을 하지 말라나요. 사랑을 하고 애정을 갖되 순간 순간 그렇게 했으면 출장 쥐고 있지 마라. 발자취처럼 그냥 걸어왔으면 그냥 내버려라 이거죠. 그것을 입력을 하고서 돌아서면 그게 정통으로 입력이 돼서 앞서의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로 나오는 데, 입력을 할까 말까 이리다가 또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입력이 되질 않아가지고는 다시 그게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 그러니 과감히 버리고 살아라. 뒷발자취를 과감히, 내가 걸어온 거 어떻게 됐나 하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버리고 살아라 이 소립니다. 하긴 하되.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떠한

심사숙고해야 하는 우리 생활 속에 끼여든 사건 들입니다. 자식들이 나와서 별짓 다 하고 뛰어다니게 하는 것도 마음의 탓입니다. 그건 자식들의 육체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제 뿌리나 내 뿌리나 돌 아는데 저렇지 않게 하는 것도 너뿐이다.' 하고 진짜로 믿고 통신이 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해결 못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못하는 것은 '나는 종이나, 나는 종이나' 영 주인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종 문서를 떼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진짜로 믿는다면 과감히 종 문서를 탁 핑개치고 입력을 해놓고선, 그 뒤에 생각하면 또 핑개치고 그 뒤에 생각하면 또 핑개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식들도 다 건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듯이 딴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말은 한다 하더라도 이 뜻을 모르고 실천을 모르고, 공법(空法)의 용도를 모르고 그러한다면 이 말은 그대로 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법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전부

정체 평형 일침요법

전문 과정 수강생 모집



주지 혜득 합장

일침요법은 단혈요법으로 한 가지 병에 침 하나로 치유되며, 혈명의 통속화로 요통혈(허리), 슬통혈(관절염), 두통혈(머리), 위통혈(위장), 악히기 쉽고 바로 쓸 수 있으며 전통혈의 90%를 감축시키면서도 다양한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일침, 일혈, 일침에 의한 쾌속한 효과와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임상결과 유효율이 99%이고 현효율이 96.25% 치유율이 88% 그 가운데 일침치유율이 15%임. (38개의 혈로 248개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음)

- 개강일 : 매일 화, 금요일 오후 2시, 7시
- 기간 : 1개월 과정(실습위주, 2박 3일간)

(공인) - 중국노동사회보장부 발행
평형 침구보건사 자격취득 가능(중급, 고급)
- NGO. 밝은사회 국제봉사단 회원가입 가능
(UN 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민간 단체임)

※원인 모르는 질병 상담환영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보금정사**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2동 536-6번지
053)474-5959 / 010-3535-9797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대구교구종무원 교육원에서는 불교의식 강의를 합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재가불자님께서는 불교기초교리와 함께 강의합니다.

1. 교육기간 - 1년 「수시모집」
2. 교육내용
 - ◇ 초급과정 - 사물, 예불편, 불공편 등 불교기초교리(재가불자)
 - ◇ 중급과정 - 시련, 대령, 관옥, 신중작법, 조전점안, 상단권공, 중단권공, 시식.
 - 범패 - 거불, 복청계, 헌좌계, 가영향수나열, 도량계, 다계 등
 - 작법 - 천수바라, 요잡, 사다라니 등 도량계, 다계 등
- ◇ 천도재 (49재) 의식을 중점 강의합니다.
3. 교육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 교육장소 -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설법전 (대구시 남구 대명 9동 629-21)
5. 문의전화 - 053)622-3702(주) 053)621-7521(야) 011-324-5133 (자세한내용은 문의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대구교구종무원 문화원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계약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명	연 락 처
부산지사	오 세 롱	051)632-0064 / 011-847-1211
대구지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6-813-8008
충청지사	해철스님	043)732-5560 / 010-9422-8453
경남 동부지사	해봉스님	055)353-1196 / 017-650-1196
경남 서부지사	영민스님	055)355-7472 / 011-9312-222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384-3009 / 016-629-1508
전북지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1-9642-7733
영주지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1-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